

나주 혁신산단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개원

에너지밸리 첫 전력 분야 종합시험연구기관 가동 전력기자재 제품 실증·시험평가 인프라 지원

에너지밸리 첫 전력 분야 종합시험연구기관인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이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26일 "전력설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나주혁신산단에 구축한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영록 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구자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장,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험연구원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평가구축 사업' 유치를 통해 설립했다. 나주 에너지밸리에 최초로 들어서는 전력설비 분야 종합시험연구기관이다. 앞으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부터 시험 평가, 인증까지 원스

톱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전기산업 제조업 사업자 단체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총괄 운영을 맡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 참여한다.

시험연구원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04억원을 들여 7천960㎡ 부지에 3천662㎡ 면적의 2개 시험동과 배전급 전력설비의 절연 특성, 전압 한도, 열화·진동·염수 환경 특성, 전자파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비 23종을 구축했다.

전남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전용선로(70kV)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특히 기업의 수요가 많고 시험 대기로 인해 4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복합가속열화' 시험 적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챔버 2대를 도입했다.

전자파시험동은 국내 배전급 시험소 중 가장 큰 규모로 설계했다. 다른 시·도



26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빈들과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험소는 전자파 신뢰성·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거리가 3~5m에 불과하나 10m까지 가능하다. 전자파는 전자기

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항목이다. 향후 전기자동차, e-모빌리티, 드론 관련 기업들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시험연구원 후속 과제로 디지털 기반 가상 모의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신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사업'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와 저탄소 경제로 진입에 따라 전력설비 분야도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제 표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단, 감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에너지밸리 혁신인프라와 연계해 차세대 친환경 고효율 전력설비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위한 시험비용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에 납품하는 자재 검수도 시험연구원에서 받도록 한전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이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해소하고 전력기자재 국산화와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전력설비 산업 기술을 혁신하고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밸리에 세계적 '전력기자재 국산화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기후위기대응 그린인프라 구축 총력

생태계 복원 보전 이용 등 5개 시책 중점 추진

광주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2045 탄소 중립 광주' 달성을 위한 그린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연 생태 기반의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태계 복원 보전 이용 관련 5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책은 ▲생태 휴식 공간 총 9곳 24만8천㎡ 조성 ▲장목습지(2.7km) 보전 복원사업 추진 ▲영산강·황룡강·광주천 토종서식지 보존과 고유 생물자원 보호,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제1회 2021 장목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비대면 개최 ▲도심 내 생태관광자원

육성과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 생태 관광 지정 지역인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평촌 반디 누리길'(6.5km)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이 마을엔 도심에서 모습을 감춘 반딧불이와 멸종 위기종인 수달·노란 목도리 담비가 서식하는데, 이를 보존하면서도 생태 관광자원화한 것이다.

이들 시책은 도심 안에서 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복원해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도 생태 가치가 있는 지역

을 발굴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그린인프라 확충과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우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광주' 달성과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들도 미래세대를 위해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선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등 생태 자원을 복원 관리 활용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균형발전박람회서 전남 에너지 신산업 주목

이색 전시관 운영...블루 이코노미·전남형 뉴딜 홍보

전남도는 28일까지 3일간 안동탈출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이색 전시관을 운영, 도 핵심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홍보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광역시·도 등 다양한 기관이 모여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치러진다.

개막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7개 시·도 관계자, 안동시민이 참석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전남도는 '바람이 분다,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 전남'이라는 주제로 해상풍력기와 스마트팜 모형, 매직 큐브 등 여러 가지 오브제를 활용한 이색 전시공간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남 전시관은 정부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과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도

하기 위해 추진한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모형으로 구현했다. 바다에는 신안 청정바다를 표현해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 전남의 면모를 보여줬다. 에너지 지리학 스마트팜(A.C.E. Farm) 모형도 배치해 전남 농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융복합 생명산업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김기홍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전남의 청정 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8.2GW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인권단체 협력사업 '반성매매 전시전' 개최

11월10일까지, 대안예술공간 산수짜리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반(反)성매매 기획 전시회 36.5°C'가 27일부터 11월10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안예술공간 산수짜리에서 열린다.

광주시 인권 단체 협력 사업인 이번 전

시는 여성·아동이 성 착취 목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주지역 예술가

'김은경' 작가의 미디어 설치 작품 '반복', 탈 성매매 당사자의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작품 '기억에서 용기를 마주하다',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 '달밤에이리메'의 렌티큘러 작품 등이 소개된다. 또 인권 단체 협력사업으로는 ▲인권 활동가 역량 강화 ▲인권 취약 계층 인권 보장 사업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준중문화 확산 등이다. /이종행기자

'마한역사문화 복원과 세계화' 대선과제 건의

광주시·전남도·전북도, 광역협력 의지 다져

전남도가 26일 나주박물관 일원에서 광주시·전북도와 함께 초광역 마한역사문화권 공동 발전 이행협약을 하고,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대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전남도와 국립나주박물관 공동 주최로 오는 28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2021 도약·마한타고 남도가자' 주제의 동아시아 고대해상 왕국 마한문

화행사 개막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3개 시·도 지자체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3개 시·도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를 위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마한 역사문화자원

의 세계화 ▲마한역사문화자원 국가문화재 지정 및 승격 확대, 마한역사문화자원 복원 정비, 관광자원화 및 홍보 등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대국민 향유 활용 여건 조성 ▲기초 조사연구, 유적 조사연구, 학제간 융합 심화 연구 등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확립을 대선 주요 정책과제로 공동 건의했다.

행사에 앞서 영산포 일원에서 김영록 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왕건호에 탑승해 고대 영산강 뱃길을 재현하고 마한정상회담을 개최해 대선과제 건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임후성기자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발전의 방향과 과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대토론회

10월 29일(금) 오후 3시 광주YMCA 2층 무진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민단체인 품자주자주민자치시민들, 통신사인 뉴스1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광주YMCA에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주민자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 주민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 광주의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의 육성 방안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이번 대토론회에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조발표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주제발표 : 서순복 조선대 교수,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 토론 : △ 사회 이용연 서영대 부총장
 - △ 토론자 ▲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일웅 광주시자치행정국장
 - ▲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 안병락 광주시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 주최 | ◀ 광주매일신문, 품자주자시민들, 뉴스1 | 주관 | 품자주자시민들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